“세연 대종사 원력·정진, 이어 가겠습니다”

전등사, 영결 · 다비식 엄수
스님 유훈 되새기며 추모
“계속되는 염불과 기도가
큰스님께 올리는 참 회향”

강화 전등사=여수령 기자

전등사 조실 정암당 세연 대종사의 영결식이 2월 20일 강화 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에서 문도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서 정암당 세연 대종사 서운문도장 장의위원장 여암 스님(전등사 주지)은 “세연 대종사께서는 후학들에게 흐트러짐 없는 가장 모범적인 승가상을 보여 주셨다”며 “전등사와 인연 지어진 사부대중은 대종사의 원력을 몸과 마음에 간직해 대종사께서 이루고자 했던 대자유의 경계를 반드시 체득하고자 각고의 정진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추도사에서 “수십 년 전 스님께서는 손가락 마디를 불살라 중도의 가르침을 얻었다면 지금 우리는 스님의 입적으로 금생에서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원력과 정진의 교훈을 얻고 있다”며 스님의 수행 정신을 기렸다.

보장사 회주 도진 스님은 조사에서 “오늘 우리는 큰스님을 슬픔으로 떠나보내기보다, 큰스님께서 평생 지켜오신 염불과 기도를 함께 이어 가야 한다”며 “그 마음이 곧 큰스님께 올리는 가장 참된 회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룡 전등사 신도 대표는 “스님께서 보여 주신 삶 그 자체가 남은 우리에게는 수행의 좌표가 되고 친절한 안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 주신 적멸의 법문에 삼가 찬탄 올린다”고 조사를 했다.

영결식 후 여암 스님은 참석 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오늘 스님 법구를 다비하는 의식에서 마지막으로 스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그 수행의 덕화를 전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영결식 후 스님의 법구는 전등사 다비장으로 이운돼 사부대중의 추모 속에 다비가 진행됐다.

한편, 세연 대종사의 49재 중 3재는 3월 8일(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 4재는 3월 15일(대구 유가사), 5재는 3월 22일(전등사 역사문화교육관), 6재는 3월 29일(정릉 봉국사), 막재는 4월 5일(전등사 무설전) 봉행된다.



전등사는 2월 20일 조실 세연 대종사 영결·다비식을 엄수했다.

세연 대종사는 서운 대종사를 은사로 1962년 출가해 1963년 사미계, 1971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2년부터 18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1만 번 ‘준제다라니’를 염송하는 주력기도에 매진했다. 이후 원주 구룡사, 김포 약사사 등에서 500일 기도, 영동 삼봉산 토굴에서 10년 정진을 이어 갔다. 조계종 제8대 중앙종회의원과 양주 흥국사·현풍 유가사·강화 전등사·성남 장경사 주지를 역임했다.

2012년 강화 전등사 조실로 추대돼 후학과 신도들을 제접했다. 2018년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품계를 품수했다. 최근까지도 시자 없이 전등사 극락암에 주석하며 직접 빨래하고, 점심을 제외한 공양도 몸소 해결했다. 2월 16일 “육십 년 지혜검 찾으러 남북동서로 쏘다니다 준제지송 칠천만 번에 업장 소멸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네”라는 열반송을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법랍 63년, 세수 86세.

‘고불매’ 꽃망울…백양사에 내린 봄소식

수령 350년 홍매화 개화
3월 28일 고불매축제 개최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장성 백암산 자락 백양사 천연기념물 ‘고불매(古佛梅·사진)’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본격적인 개화를 알렸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에 따르면 경내 우화루(雨花樓) 옆에 자리한 고불매가 최근 내린 봄비 속에서 연분홍빛 꽃망울을 드러내며 산사에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빗방울을 머금은 꽃망울은 모진 겨울을 이겨낸 고목의 기품을 고스란히 보여 주며 상춘객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백양사 고불매는 수령 350년, 나무 높이 5.3m의 홍매로 2007년 10월 8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매년 3월 말경 연분홍빛 꽃을 피우며, 은은하면서도 짙은 향기로 경내를 가득 채우는 것이 특징이다.

백양사는 오는 3월 28일 ‘고불매축제’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봄맞이에 나설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안사암연합회, 병오년 신년하례

2월 23일, 각원사서



천안사암연합회(회장 도언 스님)는 2월 23일 천안 각원사 관음전에서 병오년 신년하례를 봉행하고 지역 포교 활성화를 다짐했다.〈사진〉

연합회 원로의장 대원 스님과 원로의원 인봉 스님, 회장 도언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들은 법회에 앞서 각원사 조실 경해 법인 대종사를 예방했다. 법인 스님은 “전생 인연으로 천안에서 종사 생활을 하는 줄 알고 꾸준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어 스님들은 관음전에서 맞절을 나누며 새해 인사를 하고 지역 불교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회장 도언 스님은 “태국과 베트남 사찰 동참으로 연합회 외연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도언 스님은 연합회 운영 강화를 위해 부회장직을 보강키로 하고 탄문 스님을 부회장에 내정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화엄사, ‘화엄성중’ 7일 정근…사천왕 헌공으로 회향

7일 간 새벽 5시 사천왕문서
2월 25일 회향…200명 동참
축원 · 범패의식으로 안녕 발원



화엄사는 경내 사천왕문에서 ‘화엄성중’ 7일 정근을 진행했다. 기도 정근은 2월 25일 회향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가 2월 25일 새벽 5시 사천왕문 앞에서 7일간 밤낮없이 이어진 ‘화엄성중(華嚴聖衆)’ 정근기도를 ‘사천왕헌공’ 의식으로 원만 회향했다.

이번 회향은 각황전에서 7일 동안 단 한 순간도 끊이지 않았던 목탁 소리에 맞춰 이어진 정초 기도의 결실을 헌공 의식으로 마무리한 자리다.

화엄사만의 특별한 기도 전통으로 꼽히는 ‘7일 24시간 정근’은 각황전에서 스님들이 번갈아 ‘화엄성중’을 염송하는 수행으로, 도량을 지키는 신중 기도의 정수를 보여 준다.

사천왕 헌공은 동·서·남·북 사방을 수호하는 사천왕(지국천왕·증장천왕·광목천왕·다문천왕)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사천왕문은 불법을 수호하고 도량을 청정히 보호하는 외호(外護)의 상징적 공간으로, 수행자와 신도들이 삿된 기운을 여의고 맑은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길 발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날 회향에는 주지 우석 스님을 비롯한 범패의식 스님들과 사중 스님, 7일간 함께 정진한 신도 200여 명이 동참했다. 스님과 신도들은 각황전에서 이어 온 기도를 마친 뒤 새벽녘 사천왕문으로 이동해 헌공 의식을 봉행했다.

화엄사는 정초기도를 한 해 수행과 삶의 방향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기도로 여긴다. 새해 초 쌓은 공덕으로 한 해를 살아간다는 믿음 아래, 주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함께 정진에 나선다. 이번 기도 역시 7일간 24시간 쉼 없이 이어지며 도량을 밝히는 수행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석 스님은 회향 인사말에서 “정초기도와 사천왕헌공에 동참해 7일간 한마음으로 정진해 주신 신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화엄성중 정근은 화엄법계의 모든 성중께 귀의하며 도량을 청정히 하고, 우리 모두의 서원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정근은 개인의 소원을 넘어 사부대중이 함께 쌓은 공동체의 공덕”이라며 “이번 기도의 원력으로 올 한 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7일간 기도에 동참한 김선익 포교사는 “오랜 전통 속에서 기도 정진을 회향해 마음이 한층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대산 월정사, 병오년 신년하례법회

2월 21일 대법륜전서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2월 21일 대법륜전에서 ‘2026년 병오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교구 주요 사찰 스님과 신도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유상범·허영 국회의원,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심재국 평창군수 등 각급 기관·단체장 등 사부대중 500명이 참석했다.

정념 스님은 법어에서 종교계가 직면한 탈종교화와 지역 소멸, AI 전환의 흐름을 언급하며 “종교가 AI 시대에 어떤 담론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정사는 올해를 종무행정 전반의 ‘AI 전환 원년’으로 삼고 데이터와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천안 원오사, 베트남 교민과 ‘설 축제’

2월 17일, 5000명 동참
광주 길상사 5월 개원 예정



천안 베트남 사찰 원오사(주지 뜨엉탄 스님)는 2월 17일 경내 일원에서 교민 5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베트남 설 축제 2026’을 봉행했다.〈사진〉

송년 의식과 신년맞이 의식, 삼귀의례, 경전 독송 및 축원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베트남 교민들은 새해의 평안과 복덕을 기원했다.

주지 뜨엉탄 스님은 “차가운 날씨와 먼 길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설날 사찰을 찾는 전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욕망과 유혹 속에서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지만, 수행을 통해 깨어 있는 마음을 유지할 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며 “부처님의 말씀처럼 방일함 속에서도 늘 정진하고 깨어 있는 삶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회 후에는 베트남 불교의 전통 신행 의례인 ‘오색실 축원’이 진행됐다. 뜨엉탄 스님은 불자들의 손목에 오색실을 묶어 주며 한 해의 건강과 평안을 축원하고, 베트남 설 풍습에 따라 세뱃돈을 전달하며 새해의 복과 풍요를 기원했다.

이어 베트남 전통 민속놀이와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졌다. 교민들은 서로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한편, 원오사는 광주 지역 포교를 위해 오는 5월 31일 개원을 목표로 말사인 길상사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길상사에서도 설 법회를 여는 등 지역 베트남 교민들의 신행 활동을 돕고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분당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수료·입학식

2월 22일 지관전서
명상전문가 70명 배출



분당 대광사 부설 (사)행복명상 명상상담대학(학장 경혜 스님, 대광사 주지)은 2월 22일 경내 지관전 3층에서 ‘2025년도 수료식 및 2026년도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수료식에서는 전문과정(1급) 21명, 기본·심화과정(2급) 49명 등 총 70명의 학인들이 학사모를 쓰며 명상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학장 경혜 스님은 수료생들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전달하며 그간의 지난한 정진을 격려했다.

명상상담대학에서 배출된 명상전문가들은 대광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명상지도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학장 경혜 스님은 “긴 시간 동안 쉼 없이 정진하여 오늘 수료의 기쁨을 안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명상상담대학에서 배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내면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우리 사회를 맑히는 참된 명상 전문가로 활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본교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가 명상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에 의해 개교됐다”며 “부처님은 ‘행복은 결코 조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이러한 가르침을 담은 말이 바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설명했다.

수료식 직후에는 ‘2026년도 명상상담대학 신입생 입학식’이 이어졌다. 올해는 기본과정생 40명이 입학 허가를 받아 명상과 상담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동화사 율학승가대학원·승가대학 졸업식

2월 12일, 경내 설법전서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는 2월 12일 경내 설법전에서 ‘율학승가대학원(제9회 연구반, 제12회 전문반) 및 동화사 승가대학(제23회)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졸업식에서는 율학승가대학원 연구반 2명(선정 스님·성진 스님), 전문반 12명(도연 스님 등), 승가대학 3명(도만 스님 등) 총 17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주지 선광 스님은 “나 혼자의 해탈에 머물지 말고, 고통받는 이들을 건져 올리는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의 현장으로 당당히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정초 삼사순례

2월 22일, 직지사 등 참배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의 대표 신행모임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는 2월 22일 ‘병오년 정초 삼사순례’를 진행했다.〈사진〉

350여 명의 순례단은 먼저 김천 직지사 만덕전을 찾아 직지사 기획국장 덕현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고 〈금강경〉을 합동 독송했다.

이어 영동 반야사로 자리를 옮긴 순례단은 석천계곡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으며 보은 법주사를 참배한 사부대중은 미륵대불 앞에서 탑돌이를 하며 순례를 원만히 회향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